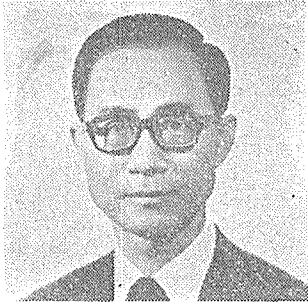


IAEA 理事國 被選과 그 展望

—東南 아시아 대표로 強力해진 發言權—



科學技術處次官 李 昌 錫

IAEA(國際原子力機構)今年度總會는 9月 18일부터 26일까지 오스트리아의 首都 비엔나에서 열렸다. 이번 總會에서의 主要問題는 北韓의 加入申請에 어떻게 對應하느냐와 우리나라가 理事國에 立候補하여 當選되는 일이었다.

北韓加入申請에 對하여는 우리나라의 外交政策에 따라 融通性있는 態度로 臨한다는 것이 우리의 方針이었고 理事國立候補는 東南亞에 配定된 자리를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었기때문에 競合을 避하기 위하여 지난 여름부터 外交チャンネル을 通하여 關係國과 協議하여 言質을 받아놓기는 하였으나 投票를 해보기 前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代表 一行 3人은 비엔나에 到着하여 韓豹項大使等과 合流하게 되었는데 北韓代表團 5名은 먼저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IAEA 加入은 理事會에서 過半數의 贊成으로 推薦되어 總會에서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하는 制度이다. 이번 總會에 加入이 豫想되던 東瀛, 蒙古 北韓의 3個共產國中에서 東瀛과 蒙古는 벌써 加入申請을 提出하였는데 北韓은 무슨 속셈이었던지 最終理事會가 있을 2日前에야 加入申請을 냈다. 아마 우리 反對를 念頭に 두고 電擊적으로 加入해버리려는 心算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의 큰 誤算이었고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幸運이었다. 北韓의 이와같은 常識에 벗어난 行動은 一部理事國의 氣分을 傷하여 本國政府로부터 贊成與否에 關한 訓令을 받을 時間的餘裕가 없다는 등의 理由로 難色을 表明하는 나라도있어 IAEA 事務當局은 北韓加入申請을 理事會가 討議準備가 되어있지 않다는 理由로서 理事會上程을 保留하게 되어있던 것이다. 이리하여 北韓加入問題는 明年總會로 밀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立候補한 새로운 理事國의 選舉는 會期 第7日인 9月 24일에 있었다. IAEA 理事國의 選舉는 前述한바와같이 各地域別로 理事자리가 配定되어있고 한장의 投票紙에 連記名으로 記入하는 秘密投票인데 各地域別로 立候補國은 事前調整되어있으나 地域外的 다른 나라들은 어느 나라가 어느 地域의 立

候補國인지는 알길이 없고 事務局에서도 이에 關한 情報는 주지않는 慣例라는 것이다. 그러나 投票는 모든 會員國이 全體地域理事國의 이름을 적어 내어야하므로 自己地域以外的 立候補國도 알아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投票日이 가까워져도 立候補國에 對한 全般的인 情報는 알길이없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낼수 있을지 걱정이되는 것이었다. 特히 共產陣容은 푹푹 뭉쳐 統一行動을 하나 自由陣容은 서로 行動統一하기 어렵고 또 會期가 지나감에 따라 小國의 代表들은 尙未 會議場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觀光旅行을 떠나버리고 만것이다. 이렇게 自由陣容의 國家가 빠져나가는 棄權이 많아져 우리나라가 過半數의 贊成을 얻는 것이 어렵게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代表團은 美國代表들과 相議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各地域別理事立候補國 名單을 만들게하고 그것을 복사하여 各國代表들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며 그 名單을 나누어주면서 選舉運動을 벌리기로 하였다. 이 일에는 姜參事官이 많은 手筈을 하였다. 姜參事官은 우리나라 選舉運動만 한것이 아니라 全體立候補國을 위하여 手筈을 한 셈이었다. 24日投票結果 우리는 在席71票中 56票를 얻어 當選되었는데 11票는 蒙古가 얻고 2票는 棄權이었다. 會員國中 約40個國이 缺席을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2年任期의 理事國이되어 IAEA 運營에 參與할수있게 된것이다.

우리나라가 IAEA 理事國이 되었다는 事實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IAEA의 協力을 얻어 原子力利用開發을 擔當할 重要分野 科學技術者를 訓練하는데 有利한 高地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뜻하며 IAEA를 通하여 다른 先進國과도 協力關係를 맺는데 큰 도움을 얻게되는 것이다. 어떤 도움을 얼마큼 얻을수있게 되는가는 全的으로 우리의 活動如何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에 對한 萬般의 準備와 對策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번 總會에 비엔나에서 韓豹項大使와 같은 有能하고 老練한 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生覺한다.